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권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45호)

2024.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권칠승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2024. 9. 2.

다. 회 부 일: 2024. 9. 3.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 1870~1964)가 조선에서 수집해간 유물 1,900여 점을 지칭한다.

이 중 왕실 물품은 궁내부가 관리하던 것으로 개인이 소장할 수 없고, 부산 연산리 고분 출토 유물, 창녕 출토 유물은 발굴 기록이 없어 도굴품으로 확인되며, 금관총 유물의 경우 총독부가 발굴한 유물이 외부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불법 도난품을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지난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우리 정부는 오구라컬렉션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최종적인 반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981년에 오구라컬렉션을 수증하는 과정에서 1965년 12월 18일 발효한 「대한

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에 따라 우리 정부에 이를 알리고 기증을 권장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의 오구라컬렉션 취득은 식민지 당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의 기원국으로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1973년 UN총회 결의 3187호’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위배되는 것이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아직까지 오구라컬렉션 등 불법·부당하게 취득한 우리 문화유산들을 소장하고 전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구라컬렉션의 불법 취득 여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성실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본 정부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을 대한민국에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의 불법 반출 여부에 주목하고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중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은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유물임. 이 물건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으로 결코 타국에 양도될 수 없는 문화재이며 개인 간의 사사로운 거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

주칠 12각상의 경우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본인이 명성황후의 건청궁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오구라 관련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오구라컬렉션의 유물 전체의 유출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부산 연산리 고분 출토 유물, 창녕 출토 유물은 공식 발굴 기록이 없고, 경주 금관총 유물의 경우 총독부가 발굴한 유물이 외부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알면서도 도쿄국립박물관이 해당 유물을 기증받은 것으로 보임. 이는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하여 일본 정부에 오구라컬렉션 불법 반출 여부에 대한 성실한 조사를 촉구하고 불법으로 드러난 문화유산의 경우 즉각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임.

Ⅲ. 검토의견

동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의 불법 취득 여부를 조사하고 대한민국에 반환할 것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오구라컬렉션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서 수집하여 반출한 유물로, 오구라 사후 1981년 그의 아들이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내 한국문화유산은 1,943점으로 유물 종류별로 보면 컬렉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고유물부터 도자, 금속공예, 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유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유산 현황]

(단위: 점)

구분	수량(점)
고고유물	1,228
불교조각	50
금속공예	258
유리공예	17
목지공예	71
도자	163
회화	77
전적·서예	35
복식	44
총수량	1,943

※ 2024년 기준 국외소재문화유산 현황통계 참고(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제공)

오구라컬렉션 유물 중 금동투조관모, 환두대도를 비롯한 8건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견갑형동기, 금동팔각당형사리기, 다뉴세문경 등 31건은 일본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되어 일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¹⁾.

1953년 한일회담 중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문화재 반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음 거론한 후,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1965년 12월 18일 발효)되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문화재 반환을 요구한 대상 중 1/3 정도는 국내로 반환이 이루어졌으나 오구라컬렉션은 개인 소장품이라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동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일본 정부에 ①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구라컬렉션의 불법 취득 여부를 조사할 것²⁾, ② 오구라컬렉션을 대한민국에 반환할 것³⁾, ③ 우리 정부에 오구라컬렉션을 반환받기 위해 일본 정부와 적극 협상할 것을 촉구⁴⁾하는 내용임.

1) 일본은 건조물, 미술 공예품 등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문화사적·학술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중요문화재로 지정함. 중요문화재는 건조물과 미술 공예품으로 크게 나뉘고 미술 공예품은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전적, 고문서, 고고자료, 역사자료의 7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음.

2) (결의안 주문)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구라컬렉션의 불법 취득 여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성실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결의안 주문) 2.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본 정부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을 대한민국에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4) (결의안 주문)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의 불법 반출 여부에 주목하고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구라컬렉션에는 왕의 상징과 문양을 갖춘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등 궁내청에서 관리하던 왕실 물품으로 개인 간의 사적 거래로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유물들이 있고,

공식적인 발굴 기록이 없거나 불법적인 도굴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금관총 및 연산리 고분군 출토유물 등 부당하게 수탈당한 우리 문화유산을 도쿄국립박물관이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문화재의 반환, 문화재의 원상회복, 피점령국에서 유래한 문화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⁵⁾의 윤리강령⁶⁾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따라서 일본 정부 측에 오구라컬렉션에 대한 불법 취득 여부를 조사할 것과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동 결의안은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겠음⁷⁾.

5)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는 1946년에 출범한 박물관 및 관련 전문직을 대표하는 비정부, 비영리 국제기구임. 박물관 관련 전문가 포럼으로 전문적,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고, 문화·자연 유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을 발전시킴. ICOM은 국제 사회에서 박물관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의 문화 인식을 높임. 현재(2024년 기준) 138개국의 박물관과 관련 종사자 50,000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6) **ICOM 윤리강령 6.2(문화재의 반환)** 박물관은 박물관자료가 유래한 국가 또는 민족과 문화재 반환에 관한 대화를 개진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나 정치적 차원의 활동에 앞서, 적용 가능한 해당국의 법령 및 국제적 법령 뿐만 아니라 과학적, 전문적,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6.3(문화재의 원상 회복) 박물관자료가 유래한 국가 또는 민족이, 국제 및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반출 또는 양도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박물관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것이 실제 요청 국가 또는 민족의 문화적 자연적 유산인 경우, 관련 박물관은 법이 허용하는 한 해당 박물관자료의 반환에 협력하기 위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6.4(피점령국에서 유래한 문화재) 박물관은 피점령국 영토에서 유래한 문화재의 구입이나 취득을 금지하고 박물관자료의 반입, 반출 및 양도를 규제하는 모든 법과 협약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7) 일본으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의 국내 반환추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2월, 2013년 12월, 2015년 12월에 각각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

국가유산청은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것을 현지에서 활용하고,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것은 환수”한다는 정책의 대원칙에 따라 해외로 불법·부당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환수 노력을 할 것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 오충석탑 반환촉구 결의안」을 각각 의결한 바 있음.

참고 1

국외문화유산 현황 : 29개국 803개처 246,304점 (2024. 1월)

연번	소장국	소장처(개처)		수량(점)	비율(%)
1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등	397	109,801	44.5795%
2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171	65,355	26.5343%
3	독일	쾰른동아시아미술관 등	27	15,692	6.3710%
4	중국	고궁박물관원 등	76	13,010	5.2821%
5	영국	영국박물관 등	32	12,805	5.1989%
6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11	6,511	2.6435%
7	러시아	국립동양미술관 등	7	5,384	2.1859%
8	캐나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 등	9	4,295	1.7438%
9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원 등	9	3,073	1.2476%
10	네덜란드	민족학박물관 등	6	1,999	0.8116%
11	오스트리아	빈민족학박물관 등	5	1,799	0.7304%
12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등	7	1,419	0.5761%
13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2	1,281	0.5201%
14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	1	1,024	0.4157%
15	스위스	베른역사박물관 등	11	695	0.2822%
16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미술관 등	7	547	0.2221%
17	벨기에	예술역사박물관 등	4	402	0.1632%
18	헝가리	호프페렌츠아시아미술관 등	2	353	0.1433%
19	바티칸	아니마문디민족학박물관	1	298	0.1210%
20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박물관 등	4	235	0.0954%
21	스페인	민족학세계문화박물관 등	2	96	0.0390%
22	노르웨이	국립박물관 등	2	81	0.0329%
23	이탈리아	주세페 투치 국립동양미술관 등	3	70	0.0284%
24	뉴질랜드	켄터베리박물관 등	2	36	0.0146%
25	그리스	코르푸아시아미술관	1	32	0.0130%
26	체코	나르프스텍민속박물관	1	7	0.0028%
27	슬로베니아	첼레시립박물관	1	2	0.0008%
28	싱가포르	국립싱가포르대학교박물관	1	1	0.0004%
29	이스라엘	이스라엘국립박물관	1	1	0.0004%
합계	29개국	803개처		246,304점	100%

참고 2

환수 문화유산 현황 : 12개국 12,637점 (2024. 1월)

대상국	수량	공공(정부기관, 지자체 등)					민간(개인, 사립박물관 등)			
		계	협상	구입	기증	수사공조	계	협상	구입	기증
일본	6,671	6,073	2,978	51	3,044	0	598	0	326	272
미국	3,744	3,346	12	253	3,069	12	398	16	95	287
스페인	892	892	0	0	892	0	0	0	0	0
독일	727	701	18	1	682	0	26	21	5	0
프랑스	315	302	297	2	3	0	13	0	1	12
뉴질랜드	186	186	0	184	2	0	0	0	0	0
이탈리아	59	59	0	59	0	0	0	0	0	0
캐나다	20	20	0	0	20	0	0	0	0	0
호주	1	1	0	0	1	0	0	0	0	0
노르웨이	2	1	0	0	1	0	1	0	0	1
스위스	4	0	0	0	0	0	4	0	4	0
영국	16	6	0	2	4	0	10	0	10	0
합계	12,637	11,587	3,305	552	7,718	12	1,050	37	441	572